영산·섬진강 수질개선 차질 우려

지자체 재원 부담률 타 지역보다 3.8%P 높아

"지방비 부담 줄이고 국비지원 대폭 늘려야"

환경부가 영산강·섬진강에 6조원을 투입해 수질을 개선할 계획〈본보 9월20일자 1면〉이지만, 지자체의 재원(財源) 부담률이 높아 계획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가뜩이나 재정이 취약한 광주·전남의 여건상 지자체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부담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환경부의 '4대강 물 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의 수질 개선을 위해 모두 32조7천436억원이 투입된다. 소요 재원은 ▲국비 18조5천341억원(56.6%) ▲지방비 8조9천525억원(27.3%) ▲수계관리기금(물 이용 부담금) 5조2천570억원(16.1%)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영산강에 투입하는 예산 6조414억원은 ▲국비 3조8천506억원(63.7%) ▲지방비 1조8천803억원(31.1%) ▲수계관리기금 3천105억원(5.1%)으로 편성돼 있다. 영산강 수계(水界)에 위치한 광주·전남 지자체의 재원 부담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3.8% P 높은 것이다.

한강 수계(서울 등)의 경우 10조7천50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지방비 부담률은 2조3천820억원(22.2%)으로 영산강 수계보다 8.9% P 낮다.

광주·전남 지자체의 높은 재원 부담률은 자칫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1998년~2004년 '4대강 물 관리종합대책'을 시행하면서 영산강 수계에 1조5천2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7천282억원(48.5%)만 투입됐다. 영산강 수계 지자체의 재정이 취약해 지방비 부담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지자체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좋은 한강 수계는 편성된 예산보다 많은 127%가 집행됐으며, 낙동강과 금강 수계는 각각 80%와 62%가 집행됐다.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효과도 커서, 한강은 목표 수질의 53.8%를 달성했고 낙동강과 금강은 32.5%와 34.2%의 달성률을 보였다. 반면 영산강은 16.7%에 그쳤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김승환 유역계획과장은 "영산강 수계의 지자체 재원 부담률이 높은 것은 '수계관리기금'이 타지역에 비해 적게 징수되기 때문이고 국비 부담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라면서 "환경부에 이 지역의 열악한 재정을 알려 국비지원을 늘려주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을 헬기에서 내려다 본 모습. 환경부는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6조원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높은 지방비 부담률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보성 겸백천변 일대 514만평 주암호 수변구역 추가 지정

공장·축사 등 신축 금지

주암호로 유입되는 보성군 겸백면 겸백천 천변 514만평〈도면〉이 수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은 20일 겸백천 인근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겸백천 양쪽 기슭 500m 이내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공장·축사·숙박시설·음식점·목욕탕·공동주택의 신축이 금지된다. 또 구역 내 음식점과 숙박시설은 3년 뒤 오수의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 기준이 현행 1ℓ당 20mg에서 10mg으로 2배 강화된다.

환경청은 지난 6월부터 환경부와 전남도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겸백천 인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전남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수변구역을 확정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환경부가 지정한 주암댐 수변구역

▲수변구역(水邊區域)=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에 인접한 하천변을 자연상태로 보전토록 지정한 구역. 환경부는 ▲한강 수계 191.30㎢ ▲낙동강 수계 274.58㎢ ▲금강 수계 373.19㎢ ▲영산강·섬진강 수계 295.63㎢ 등 모두 1천134.70㎢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더워진 바닷물… 태평양 먹이사슬 깨지나?

조류 먹이 '크릴새우' 점차 사라져

캘리포니아의 '갈라파고스'로 불리는 '패럴런 제도'에 서식하는 '알류샨 바다쇠오리'가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2년 연속 번식에 실패했다.

20일 미국 조류학자들에 따르면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샌프란시스코 인근 '패럴런 제도'에는 올해 약 2만 쌍의 '알류샨 바다쇠오리'가 알을 낳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화 후 사흘 이상 생존한 새끼가 거의 없었다.

학자들은 서부 해안지역의 기후변화로 인해 영양분이 풍부한 바다 밑바닥의 찬 물이 솟아오르는 시기가 늦어졌고, 해류마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 이들의 주식인 '크릴 새우'가 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학자들은 "지난해 알래스카 만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는 '기압마루'가 2개월 이상 오래 머물러 바다새들의 번식기가 훨씬 지난 뒤에야 찬 물이 솟아올랐다"고 지적했다.

국립해양대기청의 프랭크 슈윙 박사는 "'알류샨 바다쇠오리'는 이처럼 갑자기 먹이가 없어지는 현상에 적응할 수 없을 것이고,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생태계 전체의 대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축산폐수 무단방류 사업장 등 8곳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은 영산강 수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47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축산업자 등 8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청에 따르면 나주시에서 축산업을 하는 K씨는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축사에서 배출되는 폐수 8㎥를 무단 방치했고, 담양군 J씨는 석재를 절단하는 석재가공시설 등을 무단으로 운영하다 각각 적발됐다.

순천시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S씨는 폐유를 수거해 정제연료유로 제조한 뒤,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지 않고 중간판매업자를 통해 불법 판매하다 적발됐다.

환경청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관할 시·군에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태풍 정보 전송 위성뜰개 '부이' 첫 투하

국립해양조사원, 제주도 해상에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내 최초로 제주도 남쪽 170km 해상에 위성뜰개(바닷물 위에 떠다니는 부표) '부이'(buoy·사진) 4기를 투하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성뜰개 '부이'는 30km 간격을 두고 위치해 우리나라 태풍의 길목인 최남단 해상에서 태풍으로 인한 해양 변화 및 기압·풍향·풍속 등 다양한 반응을 관측하고, 인공위성을 통해 1시간 단위로 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해양조사원은 수집된 자료들이 '너울'(swell)로 인한 연안침수 피해를 예측, 연안방재지원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생활안내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상 담

●당직변호사(21일)	
김장생	233-9988
●법무사회 법률상담(21일)	
박문서	239-1809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성폭력상담소	671-4050
광주 YW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신 고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전남경찰청	22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테러	(02)118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여자형사기동대	363-0155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